논어 6편 옹야 16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質勝文則野，文勝質則史。文質彬彬，然後君子。」

독음 · 자왈 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문질빈빈 연후군자

쉬운 풀이(요약) · 바탕이 꾸밈보다 앞서면 거칠고 꾸밈이 바탕을 누르면 형식적이다.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質 바탕 질 질 / 勝 이길 승 승

文 무늬 문 문 / 則 곧 즉 / 野 들판 야 야 / 史 역사 사 사

彬 빛날 빈 빈 / 然 불사를 연 연 / 後 뒤 후 후 / 君 임금 군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